98억 넣었지만 소비자 외면… '실효성 제로' 제로페이

서울 거주 1000명 대상 설문
응답자 11% "이용경험 있어"
36.1% "향후 사용 의사 NO"
가맹점·혜택 부족 등 지적

서울 시민 10명 중 1명은 제로페이로 결제해 본 경험이 있으며 이용 횟수는 2~3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간편결제 서비스다.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로 결제 시 수수료가 0%다. 정부와 서울시가 올해 제로페이 홍보 예산으로 98억원을 책정했지만 실제 사용 빈도가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시의회는 지난 5월 15~24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11.3%가 제로페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8.9%로 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비중이 높았고, 60세 이상이 7.3%로 가장 낮았다.

제로페이 결제 모습. /서울시

제로페이 결제 경험자에게 이용 횟수를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2~3회(48.8%)라고 답했다. 이어 4~5회(19.3%), 1회(19.2%), 6~10회(8%), 10회 이상(4.7%) 순이었다.

제로페이 이용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서(37.1%), 홍보물을 보고 결제를 해보고 싶어서(28.5%), 이벤트 참여를 위해(24.3%),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4.8%) 제로페이로 결제했다고 답했다.

제로페이 사용 중 불편한 점으로는 주변에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별로 없다(49.3%), 가맹점에서 결제방법을 알지 못한다(29%), 결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19.3%) 등을 꼽았다.

응답자의 36.1%가 향후 제로페이 사용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주변에 가맹점이 별로 없어서(28%), 혜택이 별로 없어서(26.3%), 사용방법이 복잡해서(21.5%), 이벤트가 별로 없어서(13%), 다른 카드나 페이를 사용 중이라서(4%) 등이 있었다.

시민들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과 연계한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프로모션(28.9%) ▲오프라인 가맹점 수 확대(26.6%) ▲간편한 결제방법(16%)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광고·홍보(12%) ▲온라인 가맹점 수 확대(9.5%) ▲공공시설 할인 등의 부가 혜택(7.1%)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의회는 제로페이에 가입한 소상공인 200명을 대상으로 제로페이 사용 현황, 서비스 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응답자의 47.5%가 제로페이로 결제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52.5%는 아직 제로페이로 결제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로페이를 사용해본 적이 없는 이유로는 제로페이로 결제하려는 고객이 없어서가 78.4%로 가장 많았다. QR코드 등 키트를 받지 못함(9.9%), 어플과 미연결(6.3%), 결제방법을 모름(5.4%)이 뒤를 이었다. 특히 60세 이상(15.4%)과 50대(7.1%)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자 비중이 높았다.

상인들은 제로페이의 가장 큰 장점으로 수수료 무료(95.5%)를 꼽았다. 단점은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음(56%), 결제과정이 복잡함(22%), 고령층이 이용하기 어려움(13%), 혜택·이벤트가 별로 없음(5.5%) 등이었다.

응답자의 86.5%는 앞으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13.5%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제로페이 사용 의향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사용하려는 사람이 없어서(51.9%), 결제 방법이 복잡하고 불편해서(3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소상공인들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점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더 많은 광고와 홍보(57%), 간편한 결제방법(27%), 가맹점과 연계한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프로모션(14%) 등을 꼽았다.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 경로는 서울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 공무원의 권유가 54%로 가장 많았다. 상인연합회·관리사무소 권유(15.5%), 본사 일괄가입(13%), 주변 상인 등 기등록자 권유(12%)가 뒤를 이었다. 자발적으로 등록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에 그쳤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제로페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자 실시됐다"며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독립유공자 후손 처우 개선나서

'독립유공장학금' 연 300만원
저소득 3300가구 매달 20만원

서울시가 학업이 우수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독립유공자 4~5대손 대학생에게 '독립유공장학금'으로 연간 30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 3300가구에는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통해 달마다 20만원을 준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독립유공자 후손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독립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고자 한다"며 "독립유공자 1만5000여명 중 우리가 이름을 아는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오는 2022년까지 731억원을 지원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서울시

해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한분 한분 소중하고 세심하게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기준에 따르면 전체 독립유공자는 총 1만5454명이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1만7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서울 내 생존 독립유공자는 애국지사 10명으로 평균 연령은 95세다. 특히 독립유공자·후손 10명 중 7명(74.2%)은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국가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들을 위해 ▲생활안정 지원 ▲명예와 자긍심 고취 ▲예우강화 등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낭설(浪說·터무니 없는 헛소문)로 만든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청년 프리랜서' 대출이자 지원

금융권 밖 청년 사업자들 보호

서울시가 프리랜서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이 일정치 않고 특정 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아 제도금융권 밖에 있는 청년 개인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카카오뱅크와 청년 프리랜서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대출' 신청자 중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청년은 0.5%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서울시가 매달,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단 1개월 이상 연체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희망자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11시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1부(스캔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서울시 프리랜서 거래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프리랜서의 월평균 소득은 152만90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었다. 정기적 일감이 없다는 응답자는 54.6%, 한 달 일감이 5건 이하인 경우는 49.2%로 집계됐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프리랜서 직업 영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청년 개인사업자들은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신규 사업이 청년 프리랜서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광역 지자체 최초 '청소년 노동인권 진로 박람회'

근로계약서 작성·알바 체험 등 운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을 주제 박람회가 경기도에서 열린다.

12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진로 박람회'가 오는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나도 우리집 귀한 자식, 청소년의 노동권리 당당하게 누리자!'를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주제로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 노동인권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유익한 진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박람회에서는 청소년 대표 2명이 참여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과 노동인권에 대한 내용을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꿀잼라이브퀴즈쇼' 및 '청소년 노동인권 슈퍼토크(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인권 전문 강연)'를 진행한다.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관'에서는 노무사 전문상담 및 대학생 등 또래상담을,

'진로탐색 역량강화관'에서는 이미지 메이킹 등 면접꿀팁 및 VR 면접체험 등을, '일자리 알바 정보 체험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업종별 일자리 및 알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시, 비정규직 노동자 여행경비 지원

휴가 여건 열악한 노동자 여행 기회

서울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2019 서울형 여행 바우처' 사업 대상자 2000명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9 서울형 여행 바우처 지원은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에게 여행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요양보호사, 학교 급식 조리사,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 보조인 등 비정규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가 가상계좌로 15만원을 입금하면 시가 25만원을 추가로 입금해 총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 몰에는 국내여행 패키지 상품, 숙박권, 워터파크 입장권, 래프팅·승마·낚시 체험권 등 다양한 상품이 있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서울형 여행 바우처'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상대적으로 휴가 기회가 적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많은 여행 기회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